"근로자의 건강하고 밝은

청주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지역의 한적한 공업단지에 자리잡은 (주)삼립식품 청주사업본부는 식품위생업소다운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그안에서 1,000여명의 직원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주)삼립식품 청주사업본부가 모범 건강관리업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 총무과의 金永星계장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한다.

입사한지 17년. 직원건강관리를 담당해온지 5년이 되었다는 그는, 『제가 맡은 일이니까 최선을 다한 것뿐이지요. 제가 보건관리의 전문가도 아닌데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겸손해 하면서도 『우선 근로자가 건

생활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죠"

(주)삼립식품 충주사업본부 총무과 金 永 星 계장

강하고 밝은 모습을 지녀야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한다.

주위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이고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자신의 말처럼 건강하고 밝은 인상을 느끼게 해주었다.

『건강관리 담당 업무를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근로자의 건강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1년에 3번정도씩이나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사제도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구요.』

김계장의 이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연구심과 열성이 이번에 건협에서 실시하게 된 지역 단위 사업장 건강검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건강관리협회와 함께 근로자 건강검사를 하게됨으로써 검사과정의 불편함과 시간낭비, 반복검사의 번거로움등이 해소 되었습니다. 제 노력이 아니라 건협의 노력과 회사 운영자들의 배려의 결실이었습니다.』라고, 굳이 자신의 공로를 남에게 돌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맡은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이러한 성실하고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주)삼립식품 충주사업본부는 충북지역 내에서는 모범건강관리업체로 자리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89년봄, 충북부지사의 표창을 안겨다 주었다.

그 영광을 옆에서 함께 노력해준 동료들에게 돌린 그는, 『이번 사업은 사원건강관리의 능률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많은 사원가족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없이 좋은 일이었지요.』라면서 좀더 훌륭한 복지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충북 온양이 고향인 그는 1남2녀를 두고, 착실한 부인의 내조 속에서 직장생활 못지 않게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믿음직한 가장으로서의 위치도 다져놓았다.

서예와 운동이 취미인 김계장은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이웃과도 가끔씩 술자리를 함께 하는 소탈하고 평범한 바로 우리의 시민이자, 내 이웃이다.

〈마희연 씀〉